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공공성 실천에 대한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I.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관

II.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

III.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교육

IV.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사례 연구

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역사
2.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V. 결론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자¹⁾로서의 공공성 실천에 대한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I.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관

2000년대 들어 박물관 미술관 건립이 정부 정책에 의해 활성화된지 20여 년이 흘렀다.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관의 경영 전략, 전시기획, 작가 연구 또는 박물관교육 관련 주제의 학위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여러 대학이 박물관미술관학과를 개설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술관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 사회학 내에서의 미술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김동일은 첫째, 미술관의 시각이미지 생산과 소비의 거점이라는 특성상 현대사회를 구동하는 중요한 거점을 간과하게 된다고 했다. 둘째, 미술관은 미학, 예술학의 논의의 공간이자 사회제도의 요소로 미술관에 대한 사회학 연구의 부재는 사회학이 미적 현상에 개입하고 생산적인 담론을 생산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²⁾ 위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장 이론을 통해 '전시와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미술관이 수행하

1)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은 2004년 캐나다 국제박물관협회ICOM Canadian Bulletin 11월호에서 엘렌 페이지Hélène Pagé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Museum as Social Actor" 발제문에서 정리한 박물관의 사회적 특성은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여기서 사회적 행위자라 함은 구체적 행위를 취하며, 정보제공, 동기화, 교육, 동원의 단계를 거쳐 사회적 행위를 수행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행위자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정의했다(김동일:2005).

2) 김동일,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에 관한 사회학적 시론」, 『미학·예술학 연구』25(2006), pp.352-386.

는 사회적 행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전시와 네트워크 조직 외에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미술관의 교육적 활동이다. 미술관교육은 전시, 작품, 작가, 관람객, 그리고 미술관의 다양한 영역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정책, 교육정책 등과 같은 국가 정책, 제도와 미술관 현장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적 개념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교육)을 설정하는 데 단서를 마련해 준다.

미술관은 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공간이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외부의 것을 내부로 유입하며 유통시키는 사회적인 공간이다. 또한 그 안에 담기는 예술의 속성 자체가 매우 사회적이라는 점은 미술관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부여한다. 예술의 사회성은 우선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예술의 확장성과 관련된 것이다. 예전에 비해 예술은 보다 공적이며-사회적 의제의 반영, 사회와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예술의 역할 모색,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작품의 형태 등-작업의 결과물이 '작품' 또는 '예술'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즉, 비평가, 제도기관(미술관, 수상 제도 등) 등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비로소 예술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예술은 지극히 사회적인 속성을 가진다. 웬디 그리스월드 Wendy Griswold는 '문화의 다이아몬드 Cultural Diamond' 모델을 통해 예술, 소비자, 사회, 예술 창작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예술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현상을 개념화하였다. 이후 이 모델이 예술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예술이 사람, 조직,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분배된다고 보아 '분배'의 개념을 보완한 '보완된 문화의 다이아몬드 Modified Cultural Diamond'가 빅토리아 D.알렉산더 Victoria D. Alexander에 의해 제시되기도 했다. 예술의 사회적 속성 그리고 사회학에서 다루는 분야들- 예술, 관람객, 비평가, 전시, 작가, 교육, 수집, 연구 등-과 그 관계들이 공존하는 곳이 미술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의 관점에서 미술관을 위치시키고, 미술관교육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II.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

현대미술은 지극히 공적이다. 공적이라는 의미는 작품이 담는 주제, 메시지가 사회적이며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산·수

정·보완·재생산해 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노 요코Ono Yoko(1933.2.18.~) 작가가 1964년 교토에서 처음 퍼포밍한 작품 <컷 피스Cut Piece>는 작가의 개인적 기억과 페미니즘의 이슈, 전후戰後 일본 사회의 공포 등을 관람객이 작가의 옷을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 조각내는 행위를 통해 재연했다. 작품으로 사회와 소통의 구조를 조직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술관과 예술계 역시 새로운 방식의 큐레이팅을 실험하고 있다. ‘사회 참여적 미술’, ‘공공미술’이 새삼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 현대미술의 양상과 이를 담아 내는 미술관의 전시 사례를 통해 미술관이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송출하는지, 그리고 관람객들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 둘 간의 관계는 미술관교육을 통해 어떻게 매개되고 의미를 확장해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교육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이론의 핵심이 되는 문화자본은 ‘지배계층이 전수하려고 하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능력,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선별에 사용되는 고급지위문화의 선호로서 문화적 태도와 선호, 학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그 형태에 따라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과 객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 그리고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구분된다.³⁾ ‘체화된 문화자본’은 교양, 품위 등 자라온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문화자본으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⁴⁾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문화적 재화 형태의 자본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의 구매와 소비,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자본의 형태이다.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위, 자격증 등 제도에 의해 공인된 형태의 자본이다. 부르디외 이론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선행 연구들에서는 한국 사회에도 역시 상이한 계급별 문화적 취향이 존재하며,⁴⁾ 문화예술적 교양이 문화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부르디외는 체화된 문화자본은 가정 내에서 획득되고, 이는 학교를 통해 승인되며 개인의 학업, 직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1960년대 박물관 관람객을 연구한 그의 저서 『The Love of Art』(1969)는 부르디외는 미술관이 대중에게 열려 있으나 지극히 한정된 일부만이 방문하는 현상에

3) 김수정, 이명진, 최선헌,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2015), p.8.

4) 장미혜, 「한국 사회에서 사회계급별 소비양식의 차이」, 『경제와 사회』53(2002); 최선헌, 「한국, 한국인의 욕망: 욕망의 구도로 본 서울의 지형학 -강남과 강북 그 대립적 이미지」, 『한국문화연구』4(2003); 이호영, 장미혜, 「문화자본과 영화선호의 다양성」, 『한국사회학』42(2008); 최선헌, 이명진, 「한국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성을 위한 척도개발 기초연구」, 『조사연구』13(2012).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그는 미술관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형성된 수요, 의미와 문화자본의 불균등한 분배, 세대 간 문화자본을 세습하는 교육 시스템 등으로 결론지었다. 기존의 사회학과 교육학 분야 연구들에서도 밝혀졌듯, 자본의 우위를 점하는 집단은 지속적으로 그 자본을 통해 보유한 자본을 보다 견고히 하며 이는 2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르디외의 연구에서 논의했던 자본의 세습은 오늘날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 간 격차의 원인을 ‘영속적이며 적극적인 피드백의 연결고리’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⁵⁾ 이는 정보의 소유자는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습득하고 지속적·적극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반면, 비소비자는 점차 정보와 문화의 소비 패턴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자본의 세습적 특성과 이를 가능하게 작동시키는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제도를 고려해 본다면 불균등한 문화자본 분배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미술관, 특히 미술관교육은 이러한 정보와 문화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지식 생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인지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한 베버리지 William Henry Beveridge(1879-1963)는 사회가 극복해야 할 아젠다로 결핍, 나태, 무지, 불결 및 질병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소외, 문화자본의 불균등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자본의 불균등 해소를 통한 개인 및 사회 문화자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미술관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이 보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IV.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사례 연구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외적 요인으로서의 문화정책과 교육사업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것이 반영되는 양상을 통해 "미술관은 예술장과 사회공간을 매개하고, 예술장의 굴절효과를 수행한다"는 김동일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 활동이 정책과 법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견고히 하는 수행적 역할로서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5) 존 포크·린 디어링, 노용, 이주연, 류지영 역, 『박물관교육의 기본』(서울: 미진사, 2007), p.254.

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역사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과 함께 출발한 미술관교육 활동은 과천관과 역사를 함께 한다. 과천관은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게임 등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와 문화예산의 확충 등 시대적 조류에 의해 탄생했다.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발생 한 미술관교육은 지금까지의 시대적 변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연관되며 모든 국가의 제도⁶⁾는 예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⁶⁾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시대별 문화정책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미술관 현장의 방식과 그에 따라 구체화되는 각각의 사업들의 전개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대두되었던 과천 시대부터 90년대에는 국민이 미술문화 소비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술관교육이 적극 활용되었다. 이 시기 미술관교육은 사회교육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시도를 보여 주었다. 문화부 출범에 따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반인과 교사 대상의 <미술관문화학교>사업, 중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방향성 모색을 위한 <미술관 교육 워크숍>, <미술관과 미술교육> 등의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이후의 교육사업들이 변형, 확장, 변화하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었는데 특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12.) 등 국가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의 교육활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커다란 지형 안에서 미술관교육을 위치시키려 한 노력들은 학교연계교육, 문화나눔 사업, 전문인 교육 등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아우르며, 미술관의 공공성과 미술관교육의 개방성, 실험성을 바탕으로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또한, 2013년 서울관 개관을 계기로,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은 각 관별 차별화 전략과 정체성 구현의 중요한 축으로서 미술관교육 역시 새로운 시대적·기관 내부적 요구를 받았으며 새로운 미술관교육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국립현대미술관은 형태적으로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실현되는 행정기관이며, 동시에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담론을 생산하는 상징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활

6) Victoria D. Alexander and Marilyn Rueschemeyer, *Art and the State*(UK: Palgrave Macmillan, 2005), p.183.

동, 구체적으로는 미술관교육의 당위성과 효과성, 의의 등은 공공성, 문화 그리고 문화정책 등과의 통합적인 논의 구조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1) 공공성, 문화, 문화정책의 함의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⁷⁾, 어떤 사물·기관 등이 널리 일반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성질⁸⁾로 정의된다. 그러나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는 모호하고, 광범위, 방대, 복잡하여⁹⁾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정책의 영역에 적용하고자 한 이병량의 연구¹⁰⁾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형식적 차원, 내용적 차원, 그리고 과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형식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은 핵심적인 속성 ‘정부’, 즉 공공성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행정기관의 역할과 관련 있다. 이는 공공성을 시장논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보고 있는데,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않거나 시장기능에 의존할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하여 공급과 서비스를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의 공공성도 제시하였는데, 국민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등에 공공성의 개념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은 사회적영역을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규범적으로 ‘좋은 상태’¹¹⁾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정부와 관계하는 것들, 정치성, 공익성, 교육성, 공정성, 인권, 윤리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좋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정부의 개입 자체로 달성되지 않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공공성은 획득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상태’는 문화권¹²⁾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문화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층위로서 문화가 지니는 위상을 기본적

7) NAVER 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95900> (검색일 2017.10.20.)

8) google
http://w.google.co.kr/search?source=hp&q=%EA%B3%B5%EA%B3%B5%EC%84%B1&oq=%EA%B3%B5%EA%B3%B5%EC%84%B1&gs_l=psy-ab.3..35i39k1l2j0l8.2036.2918.0.3140.10.9.0.0.0.0.179.1002.2j6.8.0....0...1.1j4.64.psy-ab..6.4.528.0..0i131k1j0i3k1.0.2btOTrp9pA (검색일 2017.10.21.)

9) 백완기, 「민주화와 권력지상주의 문화」, 『한국행정학회』12(2003), p.2.

10)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18(2001), pp.119-146.

11) 이병량, 앞의 글(2001).

12)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Article 5: Cultural rights are an integral part of human rights, which are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The flourishing of creative diversity requires the full implementation of cultural rights as defined in Article 2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Articles 13 and 15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l persons have therefore the right to express themselves and to create and disseminate their work in the language of their choice, and particularly in their mother tongue; all persons are entitled to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that fully respect their cultural identity; and all person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ir choice and conduct their own cultural practices, subject to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권리로서의 문화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화권은 단독으로 거론되는 경우 보다는 경제권, 사회권과 함께 논의되는 권리로, 최근 국제화에 따라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인지, 감각, 감성의 문제, 대규모 이주와 이민,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타 문화와의 광범위한 접촉, 그리고 저작권의 이슈 등이 발생 배경이다. 같은 연구에서 이병량은 문화권을 1) 문화생활에의 참여와 향유, 2) 문화 창작과 전파, 3) 문화적 소양을 위한 교육, 그리고 4) 문화적 실천의 확대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공공성 개념 분류의 마지막으로 과정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은 정부가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하는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참여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소통의 장을 통해 공공성은 완결성을 띠는다고 보았다.

문화의 정의는 공공성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문화는 예절,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 등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론 기반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UNESCO는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가치관,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레이먼 윌리엄즈 Raymon Williams는 “변화하는 삶에 대한 반응, 사고, 느낌의 기록”으로 문화를 정의하였다.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는 시간, 지역, 관점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다루는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정책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포함해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행정”¹³⁾, “국가 단위가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이상적 목표를 국가 개입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¹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예술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술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¹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정책 개념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종교, 예술, 철학, 과학 등 고차원적인 인간 정신 활동의 표현을 문화라고 생각하다가 점차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문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또한 문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문화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서 확장하여 문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문화의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고 주어진 환경과 생활양식에 대한 서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문화와 문화정책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은 미술관 현장, 그리고

13)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정책논총』5(1993).

14)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5(1993).

15) 임학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1998~2007)」, 『문화정책논총』21(2009).

미술관교육과의 접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선, 미술관(교육)이 다루는 소재인 현대 미술, 즉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통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공공재가 가지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정부 정책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 구조를 통해 생산될 수 없고 정부가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승차, 혼잡의 문제와 관련 있다. 문화예술은 대중이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는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따라서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해야 하는 가치재(merit goods)이다. 즉, 문화는 공공재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 공급하므로 공공재인 것이다.¹⁶⁾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도 그리기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Bay Press, 1994』의 저자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공공성의 목표는 미술을 보다 ‘새롭고 다양한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것”으로 미술관 공공성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미술 작품을 다루고 수집, 연구하고 교육적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매개하는 공공의 장소인 미술관의 책무와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로서의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성과는 공공성의 실천의 정도로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고객만족도 조사 PCSI 분석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국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업성은 기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영형태이기 때문이다.¹⁷⁾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PCSI)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불만족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이다. 단순한 고객만족 수준의 파악을 넘어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기관 내부로 환류·적용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기업 대상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달리, PCSI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 사회품질 요인과 사회적 만족, 사회적 성과를 모델에 도입한 지표이다. 책임운영기관¹⁸⁾인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

16) 이병량, 앞의 글(2001), pp.119-146에서 재인용.

17) 한승준, 「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5(2016), pp.125-146.

18)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위키백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에 의해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으로 2006년 지정되었다.

[관련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대행하는 이 조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파악,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확보라는 목적이 있다.

2014년의 경우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문화 이용객의 만족도가 전시관람 관람객의 77.2점 대비 8.5점 높은 85.7점(2013년도 대비 +1.8점 상승)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 이용객의 PCSI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체 대비 +7.6점 높고, 38개 책임운영기관 전체 대비 +2.6점, 교육훈련 및 문화형 기관 전체 대비 +7.0점 높았다. 교육문화 이용객 전체 고객만족도를 구성하는 만족지수 중 체감만족이 88.7점으로 만족(84.4점)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만족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질지수에서는 상품품질이 가장 높고, 사회품질, 환경품질, 전달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수에서는 기관성과가 90.2점으로 사회성과 85.2점 대비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조사는 총 800명을 대상으로 2015. 11. 16.-12. 11. 기간 중 과천관, 서울관 및 덕수궁관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 PCSI는 83.7점으로, 전년 대비 +5.6점 상승했고, 업무유형별 PCSI는 ‘교육문화 이용객’이 88.4점으로 ‘전시관 관람객’(83.2점)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육문화 이용객 전체 고객만족도는 88.4점으로, 전년 대비 +2.7점 상승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체 대비 +4.7점, 38개 기관 전체 대비 +3.0점, 교육훈련 및 문화형 기관 전체 대비 +6.2점 높게 나타나 전시 등 타 영역의 서비스에 비해 꾸준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6년 조사는 전년대 동일한 표본 규모인 800명을 대상으로 2016.11.7.-12.7. 기간 중 3관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교육문화 이용객의 PCSI가 90.4점으로 전시관람객의 PCSI 82.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직업별로는 교사(95.2.점), 방문횟수별로 4회(93.8점), 내용별(상설전시관람, 특별전시관람, 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로는 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90.8점)가 각각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교육문화 이용객 전체 고객만족도(PCSI)를 구성하는 만족지수 중 체감만족이 91.8점으로 요소만족(89.8점)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질지수에서는 전달품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품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예년과 달리 성과지수 중 사회성과가 93.1점으로 기관성과(91.4점) 대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016년도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⁹⁾

19) 국립현대미술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2017).

표 1. 개선 요구사항 및 핵심관리요소

구분	개선 관리 요소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VOC -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s -	핵심 관리 요소 - Critical To Quality -
전시관 관람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롭고 유익한 작품 및 교육프로그램 · 체계적 구성/전문성 갖춘 ·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술 체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으면 함 · 작품설명 필요 · 전시 수준 향상 요망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많아졌으면 함 · 전시동선이 헷갈림 · 실내 쾌적하지 않음 · 대중적인 공연/전시 확대 · 전시에절 안내 필요 · 연령별 프로그램 부족 · 냉,난방 온도가 적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Q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시·교육 관련 시설/환경에 대한 점검 · 주요 관리 -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구축
교육 문화 이용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술 체험 기회 제공 · 안전하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으면 함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많아졌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Q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시·교육 관련 시설/환경에 대한 점검 · 주요 관리 -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구축

3) 고유사업평가 분석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실천 과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미술의 중심 미술관”이라는 비전 하에, “국민행복을 위한 미술관 조성”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가지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세계일류 미술관으로 역량 제고’: 한국현대미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기획, 국제미술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미술품의 체계적 수집 및 통합보존체계 구축, 레지던시 입주 대상 확대 및 연구기능 강화
- ‘미술문화 향유의 중심역할 강화’: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및 개방성 확대, 다양한 미술 경험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국가 대표미술관으로 인식 강화’: 지역 미술관 및 국내 미술계와의 소통 강화, 미술연구자료의 체계적 제공으로 미술 이해 증진, 선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협업 및 소통 강화

미술관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분장사무로 가지고 있는 교육문화과는 참여자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제고 정도(미술관교육) 및 미술관 및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문화 프로그램) 정도를 사업의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참여자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개최 건수 등의 정량평가 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부터 현재의 지표를 적용해 오고 있다. 수정 지표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의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이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 여부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즉, 미술관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 경험이 현대미술, 미술관, 문화예술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및 강화에 미치는 순기능적 역할을 측정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최근 3년간 고유사업성과 조사 결과

구 분	2015년		2016년	
	조사인원	점수	조사인원	점수
교육 참여자 인식 변화 점수	2,606명	94.4%	2,744명	93.6%
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변화 점수	559명	88.7%	718명	95.8%

산출방식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변화 점수의 가중치를 각 70%와 30%로 두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포함한 답변자가 당해 목표치인 87% 이상이면 100점, ‘보통’ 답변자가 77%이상일 때 90점을 부여하여 계산한다. 조사 결과, 매 년 목표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미술관의 공공성 수행에 있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도 성과 결과에 대한 주요 실적으로는 외부 전문가(기관)와의 협업을 통한 미술관 교육 콘텐츠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자 만족도 및 이용 편의성·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공간(MMCA-O, 과천관 1층) 확보, 교육 활동을 통한 ‘과천 30년’ 의미의 효과적 전달 및 예술적 경험 및 동시대 작가와의 협업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립기관 공공성 실천으로서의 미술관교육의 성과는 참여자(관람객)의 현대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긍정적 인식 변화로 측정하였다. 이는 미술관이 보유하는 공공재원인 소장품, 전시 콘텐츠, 유·무형의 인프라 등이 교육적 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경험과 의미 생성의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곧 공공재원이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되고, 개개인의 문화자본의 질적 성장은 결국 사회 전반의 문화자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로 유의미한 부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의 교육적 활동을 통해 문화자본 생산 및 공익적 분배를 통한 ‘삶 속에서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소장품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 문화소외계층 대상 미술관교육 확산 등을 통해 실천되었다.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의 사립 미술관과 공유하여 국가의 자원을 지역으로 분배한 점 역시 미술관이 공공성을 실천한 유의미한 사례라 할 수 있다²⁰⁾.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공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정책환경에 따른 미술관교육 현장의 창의적 변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즉,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교육을 통해 작가, 작품, 관람객, 미술관 외부 환경이 만나고 관계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 미술문화 향유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매체를 활용한 혁신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이 서울관 <무한상상실 아트팩랩>²¹⁾을 통해 실험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한 현장의 변화이자, 미술관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행보로 읽혀질 수 있다.

V. 결론

본 원고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교육적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적 자원이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본으로 변환되는 현상과 성과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이 다소 빈

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협업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의 우수 콘텐츠를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유하여 지역 소재 어린이들의 미적 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역 미술관에서 960명이 참여함.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개발한 교육 매뉴얼을 중심으로 각 미술관의 현장성을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국정과제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21) 3D 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는 ‘미술관 속 예술창작 공간’. 미술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혁신적 창작 공간역할 및 사회와 연결되는 창의 활동을 확장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제작기기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팩랩 셀프 가이드”에서 발췌).

약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점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본 원고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제안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미술관 교육의 교육적 효과성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과, 그리고 미술관교육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에 있어 미술관교육이 미치는 순기능을 규명함으로써, 미술관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연구자의 고민의 과정으로 읽혀지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미술관교육은 지협적 의미에서의 교육적 활동이 아닌 사회적 행위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공공성 실천의 핵심 기제로서 당위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공공재원이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본으로 변환되어 공적으로 재분배되는 사회적 실천과 지속적인 문화향유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은 미술관교육이 실현할 수 있는 미술관의 공적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를 향해 있고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적 의제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미술관은 사회적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미술관 담론을 변화시켜야 함은 필연적이다. 미학과 담론의 생산자로서의 기존 미술관은 이제 사회 속에서,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21세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뮤지엄의 개념 역시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열린 담론 형성의 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포스트 뮤지엄이 추구하는 가치는 미술관이 예술을 규정하는 권위를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의 제공 등을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과 그 성과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미술 교육은 개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지역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헌하는 것이다”. (아더 애플랜드Arthur Efland, 케리 프리드만Kerry Freedman, 패트리시아 슈터Patricia Stuhr)

〈참고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2017.
- 김동일,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에 관한 사회학적 시론」, 『미학·예술학 연구』 25, 2006.
- 김수정, 이명진, 최섯별,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 201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 재방문을 및 계층 분석을 위한 시범조사」, 2017.
-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 2001.
- 존 포크·린 디어킹: 노용, 이주연, 류지영 역, 『박물관교육의 기본』, 미진사, 2007.
- 한승준, 「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5, 2016.

Eilean Hooper-Greenhill(2000), *Changing values in the art museum: rethinking communication an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Eilean Hooper-Greenhill, *Education in the Museum: Frameworks for Practice*, School of Museum Studies Syllabus.

Victoria D. Alexander and Marilyn Rueschemeyer(2005), *Art and the State*, UK: Palgrave Macmillan.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ness as social actor¹⁾ through museum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Jangeun Cho
Senior Educ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is paper aims to study and define the function, role and significance of museum education in this changing society on the premise that museum has public nature as social space²⁾. As the society had shifted towards postmodernism after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in the 20th century, museum had gone through enormous changes. Museum used to gain its authority by producing cultural power and spatializing and visualizing the world of aesthetics. However, in the new era, museum is forced to compete with other social entities. Its curatorial power is challenged by the public while museum management is asked to find more interests and new approach to visitors.³⁾ At this moment, museum needs to define its identity within its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The ontology of museum as a place of coexisting with local community can be established in its effort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various issues on visitors and social conditions. Hooper-Greenhill explained the complicated and multifaceted causes of change in museum. For example, there are demand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ponse of museum from the public, deepe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n museum, and the expansion of policies emphasizing educational activities.⁴⁾

1) Hélène Pagé called museum as social actor in the November issue of ICOM Canadian bulletin in 2004 under the title of "Museum as Social Actor", which is very useful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useum and society. Social actor refers to the execution of social actions through the processes of information provision, synchronization, education, and mobilization. A social acto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changing society. (Dongil Kim: 2005).

2)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confined to the value of public resources including arts and culture delivered by the state, as main actor, for public interest like the growth of cultural capital on the premise that arts and culture aren't dependent on individual and the function of market.

Changing values in the art museum: rethinking communication and learning, Eilean Hooper-Greenhill,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00, pp. 9-31.

4) Eilean Hooper-Greenhill, "Education in the Museum: Frameworks for Practice", School of Museum Studies Syllabus, p.5

These factors point out the role of museum in the society and the justifiability of museum education. Museum's identity as social institution is often recognized in the society. According to a survey among museum visitors,⁵⁾ people answered sufficient description for exhibition (81.8%) and substantial provision of museum collection (80.4%) as important factors. About educational programs, many people mentioned the necessity of lifelong learning (81.4%) and the number and quantity of educational programs (80.6%).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conducted a survey among visitors from July 31 to August 31, 2017. Out of 390 respondents from Seoul and Gwacheon branches, 212 people (54.4%) answered that the level of museum's social contribution was either very high or high. The result shows that the public regards museum as social space that operat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It also shows that the public expects MMCA to fulfill its public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institution. Today's museums are required to play effective roles for satisfying various demands from the society and the public. Museums should prove their justifiability and dynamics of existence and present new kinds of values in the context of changing society beyond their previously proven values.⁶⁾ In this sense, the role of museum education should be redefined from the perspective that museum can organize and expand complicated networks among visitors and contemporary arts.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can provide useful consideration of social function, role, and future direction of museum education so that museum can implement its publicness through museum education.

Keywords: Museum, Museum Education, Publicness, Social Actor

5)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conducted a survey on the analysis of revisit rate and social class among visitors in national and public museums from December 2016 to January 2017. 13 national and public museums whose annual visitors exceed 500,000 include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National Hangeul Museum.

6) *ibid.*